

제9회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

특별상 (신수회 회장상)

최봉중 (대전교도소)

하지만, 거의 새벽까지 매일 연습하다보니 일주일 후에는 4소절 짜리 곡은 눈을 감아도 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방법으로 한국곡 연습했다니 봉축법회 때는 반주가 결여어진 찬불가 세곡을 선보일 수 있었다. 중간에 몇 군데 틀려서 당황하기도 했지만, 노래를 마친 후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나는 그날 낯선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로 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았고,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그 후 외부 합창단이 위문공연을 오면 반주자가 어떻게 연주하는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았다. 나중에 기억을 되살려 반복해서 연습했다. 실사 천재라 한들 한번 본 것을 그대로 따라 칠 수 없었지만, 악보를 구해놓고 훑내 내어 보려고 갖은 애를 썼다. 그렇게 조금씩 음악을 알아간 것 같다.

이곳 수용자들이 말하기를 이곳은 봄과 가을이 없다고들 한다. 여름과 겨울이 빨리 찾아오기 때문이다. 겨울의 방안은 밖의 기온과 다를 바가 없어서 겨울에는 잠갑 손가락 부분을 잘라서 끼고 연습한다. 그래서 겨울에는 늘 동상 때문에 고생한다.

그런 나의 노력을 가상히 보신 분들의 도움으로 악대반으로 부서를 옮길 수 있었다. 그곳에서 피아노는 물론 여러 악기를 다뤄 볼 수 있었다. 그것이 나에게 크나큰 행운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악기를 익히고 각각의 역할과 조화를 이해하게 되면서 음악에 대해 조금씩 눈을 뜨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무언가 보답하고자 교도소에서는 처음으로 제 1회 뮤지컬 '진묵대사', 제 2회 '영광라마', 제 3회 '조선의 꿈' 등을 직접 연출하여 대성공을 거두었다. 모든 불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재사자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는

냐'는 등 반응이 너무 좋아서였을까. 교도소사상 처음으로 외부공연인 대전 엑스포 아트홀에서 인간 문화재 공옥진 선생님과



그림 · 김홍인

찬불가 공모서 '대상' ... '무기'에서 '20년'으로 감형

함께 연구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그날 더욱 감격스러웠던 일은 내가 작곡한 노래를 부를 때 이 죄인의 노래에 많

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1999년 8월 현대불교신문에서 보도한 '찬불가 공모'를 보고 그간 만들어 놓은 곡들을 불교 담당님께 보여드리고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렸다.

사실 응모하면서 그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곡들이니 기대 이상이지 못해도 응모자제로 만족하자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그 곡이 뜻하지 않게 '장려상'을 받게 되었다. 미흡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더욱 분발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했다.

2001년 8월 제3회 찬불가 공모에서는 악보와 테이프를 예선을 치르고 본선은 대회장에서 직접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했다. 수인의 몸이라 본선 심사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나는 예선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다.

나중에 본선에 올랐다는 통보를 받고 그 정도로 만족하지 하고 마음먹었지만 아쉬움을 지울 수는 없었다. 이런 간절한 심정을 아셨는지 본선대회를 며칠 앞두고 소장님께서 참가를 허락해 주셨다.

당일 아침 교도소 직원 3명과 지프차로 5시간 만에 서울에 도착했다. 오랜만에 차를 타서 멀기 때문에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도 너무 아파 점심도 못먹은 채 본선 행사를 치렀다. 본선 진출자들의 노래를 들어보니 화려한 그들의 모습이 부러웠고 반면 나 자신은 초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가시밭 인생길에 쓰러진 나를 일으켜주신 부처님을 생각하며 있는 힘껏 노래를 불렀다.

모든 차례가 끝나고 시상식이 이어졌다. 우수상과 대상이 남을 때까지 내 이름은 불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장려상' 정도라도 받아서 돌아가면 애써주시 분들께 털어놓으려 했는데, 역시 지나친 기대였다'라고 생각한 순간,

"대상!"  
"최봉중 작사, 최봉중 작곡의 '나유타'!"  
우수상보다 먼저 '대상'이 발표되었을 때 그 이름이 다른 누군가의 이름인 것만 같았다. 마치 꿈속의 일인 것만 같았다. 시상식을 마치고 어떻게 다시 교도소로 돌아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교도소로 돌아와서도 좋은 일은 계속됐다. 무기징역에서 20년으로 감형이 되었고, 2002년에는 사회복지단체나 장애인들을 위한 위문공연도 가게 되었다. 그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비록 보잘 것 없는 죄인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2003년 11월 27일 '귀휴'라는 갑작스런 연락을 받고 당황스러웠다. 제 4회 찬불가 교육악제에 참가하라는 것이다. 행사내용은 제 4회 찬불가 공모 입상곡들과 지금까지 '대상'을 받은 곡을 세종문화회관에서 발표한다는 것이었다. 쫓겨간 생인이 지 알 수 없어 살을 꼬집어보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달랠 길 없어 그날 밤을 뜬눈으로 지냈다.

'16년만의 외출', 영원히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이곳을 혼자 몸으로 나와 밝은 세상의 땅을 밟은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다.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의 모습, 엄마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가 는 아이의 모습이 얼마만인가.(계속)

킬레이 수행일기 <하>



홍제중 교감

학교 법당을 개방하기로 하고 교학 시간과 불교학생회 법회를 통해 법당에서 예절을 지도하고 참배할 것을 권장하였다. 예상 외로 아침 저녁으로 참배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마침 표창사 주지 스님께서 양육하는 두 명의 학생이 본교에 재학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집착하고 조석으로 예절을 자체적으로 모시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대견스럽고 고마운지... 나 자신도 동참하였는데 많은 학생이 예불에 참여하여 환희심이 일어날 정도의 분위기였다. 중학교 교법사로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재학중인 이교도(異敎徒) 학생에 대한 지도이다. 농어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추첨으로 본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종교수업으로 말미암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도 했다. 하지만 이들 이교도 학생을 별도로 의식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본교는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학교

몰입하는 일을 수행의 한 방편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2002년 10월 용궁사 주지 정무스님께서 밀양에 불교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를 물어 왔다. 정무스님은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용궁사 주지로 부임한 이래 밀양의 불교포교를 위해 과히 헌신적이고 의욕적으로 인재발사에 나선 분

종교다른 학생 교화에도 정성다해 밀양불교대 설립에 앞장, 올 4월 개교

로 매주 수요일 부모님, 스승, 친지, 친척에게 편지 쓰기를 하도록 한다. 그런데, 스승님께 편지 쓰는 주에 많은 편지가 왔는데 대부분이 이교도 학생들의 것이었다. 편지 내용을 요약하면 사설 기독교인으로서 불교 종립학교에 배정 받아 입학하게 된 것을 너무나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학시간에 수업을 받고 보니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편지 말미에 '교학 수업시간이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정말 오늘날까지 받은 편지 중 가장 감명 깊게 받은 편지였다. 이에 용기를 얻어 학생 지도에 수행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이다 보니 오히려 별 어려움이 없었다.

1991년 3월 16일 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교법사 자격증을 품수 받았다. 이제부터 더 큰 책임감을 갖고 표창사를 비롯하여 밀양사암연합회 소속 각 사찰의 모든 포교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동안 업무 시간 이외에 불교공부를 하며 나름대로 천수경 기도와 참선 정진을 해왔지만, 이때부터는 포교활동 자체에

이다. "스님, 이번에 또 큰 일을 저지르려 하시니까?" 했더니 "큰일을 저질러 보렵니다" 하였다. 평소 스님의 스타일로 보아 나에게 의사를 타진할 정도면 모든 것이 다 구상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나는 스님께서 "큰 일을 저질러 보렵니다" 하신 말씀에 용기를 내어 밀양의 대덕 스님, 지역 신행단체장, 밀양의 저명 불교인들로서 '밀양불교대학' 설립을 위한 회의를 시작했다. 본교 교부실에서 정무스님과 함께 신도 교육전문기관 인가신청에 필요한 11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포교원에 제출하고 실사까지 무사히 마쳤다. 드디어 밀양불자들의 숙원사업인 밀양불교대학을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4년 4월 15일 주야 80명의 수강신청을 받아 개학하게 되었다. 수강생들의 열의와 진지한 면학 분위기를 보면서 '절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기에 일은 저절로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

나도 인연 따라 이 호휴이 그치게 될 때까지 정성스럽게 수행과 포교를 위해 힘을 쓸 것을 발원해 본다.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 품은 꿈과 희망이 가득찬 신행수기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문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isiswhy@buddhapia.com

석주 큰스님의 병풍

단 한번의 기회!!

석주큰스님 글씨가 있는 팔상도8폭병풍에는 고유의 일련번호가 주어집니다. 1,000점 이상은 만들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구경할 수도, 살수도 없습니다.

- 보문복지원 기금마련을 위한 한정제작 -

살아계신 한국현대 불교사로 추앙받고 있는 칠보사, 봉은사 조실 강석주 큰스님.

사대부중 모두가 존경하옵는 큰스님의 반야심경이

청곡화백의 부처님의 위대한 생애를 여덟장면의 중요부분으로 그림에 옮긴 팔상도와 함께 양면표구되어 불자들에게 보급됩니다.



(앞면)석주큰스님의 친필 반야심경(영인본)



(뒷면)청곡화백의 팔상도



김선원 선생의 사명수도자기

KBS1TV 진용영종 고서화 강령우영이시며 이시대 최고의 서예가이자 한학자이신 매산 김선원 선생께서 향유로써 정성을 다하여 써주시는 사명수 도자기. 가리(罐), 봉황(鳳), 산구(山), 공(鼎)

고당스님의 친필 달마도

30년간 수행종도의 경성세인 고당스님이 달마도는 행운의 달마도로서 복운을 막아주고 상스러운 가정을 없애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달마도. (※작품만 드립니다.)

팔상도8폭병풍 (석주큰스님 반야심경) 매산 김선원선생의 친필 사명수도자기 고당스님 친필 달마도

860,000원 → 395,000원

보문복지원 대행 : (주)명성이앤서

문의전화 : 02-424-9901

\* 개별 구입도 가능합니다.